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 - 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 갈등을 중심으로 -

이 신 재\*

1. 문제의 제기
2. 중국의 참전과 김일성의 위기의식
3.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4.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인민군 통제
5. 결 론

### 1. 문제의 제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대내에 조직되어 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조직이다. 총정치국은 군단에서 중대에 이르기까지 인민군 전 단위에 조직되어 있으면서 당정치사업을 통해 인민군을 당과 수령의 군대로 유지시켜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총정치국은 북한의 당군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라 할 수 있다.

---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북한이 총정치국을 설치한 것은 UN군에 밀려 급박하게 후퇴하던 1950년 10월 21일이다.<sup>1)</sup> 북한은 총정치국 설치에 대해 “인민군대내에 당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실현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잘 하지 못하였고, 특히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 당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sup>2)</sup>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은 후퇴과정에서 제기된 인민군대의 무질서한 모습을 보다 강력한 당기구 설치를 통해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UN군에 밀려 ‘급박하게 후퇴하던 시기’<sup>3)</sup>에 김일성이 ‘고백’했듯이 당시 3개 사단만을 보유하면서 북한 지도부끼리 연락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충분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sup>4)</sup>

이 점에서 북한의 ‘패배주의적 경향’<sup>5)</sup>이 나타나던 ‘급박한 후퇴시기’에 총정치국 설치라는 결정을 내린 ‘또 다른 배경’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된다. 북한은 ‘처참한’ 상태로 후퇴하던 1950년 10월에 왜 인민군대내 총정치국이라는 당 기구를 설치해야만, 또는 설치하려고 했을까?

그동안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의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종석, 이대근, 서동만, 고재홍 등의 연구가 있다. 자료부족과 접근의 제한 등 연구 환경이 불비한 가운데서 이들의 연구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실체와 역할에 대한 귀중한 성과들이다. 그러나 이

1)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10.21)」,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54쪽.

2) 김일성, 앞의 글, 354쪽.

3)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한 UN군 사령관은 10월 9일 인민군의 무조건 항복을 제차 요구하며 북진작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10월 11일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에 최후 저항명령을 하달한다. 또 김일성은 1950년 10월 20일 후퇴 중 덕천 대유동에서 중국군 사령관인 팽덕회와 만나 “우리는 지금 3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1, 162~163쪽.

4) 1950.10.19일 팽덕회는 박헌영과 신의주에서 만났으나 김일성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고, 이후 중국대사관을 통해 덕천 대유동에 머물고 있던 김일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종석, 위의 책, 162쪽.

5) 김일성,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이다-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52.6.18)」, 『김일성 전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7쪽.

들 연구에서 총정치국의 성립배경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북한의 '발표문'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석은 총정치국 설치에 대해 '인민군대의 무질서하고 황망한 후퇴에 직면하여 군대내 당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인민군 총정치국을 신설하였다'라고 적고 있다.<sup>6)</sup> 이대근은 총정치국의 설치에 대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당 정치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북한의 발표 및 국내 관련 연구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북한이 직면한 '다급한 전선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동만은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동만은 1950년 10월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 및 지휘권 이관문제가 지금까지 당내에서 진행되었던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군대내 당기구 설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며 추가적인 논의 전개는 하지 않았다.<sup>8)</sup>

고재홍은 한국 전쟁기 북한이 총정치국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매우 세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이 시기가 남침이 실패로 돌아간 매우 민감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북한군내 총정치국 설치의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기에 군대내 당 조직을 설치했을까?

이 글은 북한이 후퇴라는 다급한 시기에 왜 인민군대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을 설치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이룩한 성과 위에서 총정치국 설치배경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북중(北中)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2003, 240쪽.

7)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한울아카데미, 2003,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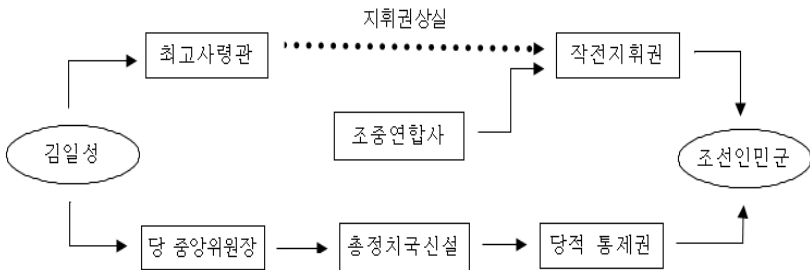
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 1945~1961』, 선인, 2005, 415쪽.

9) 고재홍, 「6·25 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군사』 제5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53쪽.

구체적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중국인민지원군'<sup>10)</sup>의 참전과 조중연합사령부 구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 단속을 통해 자신의 국내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조중연합사에 '빼앗길 수도 있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작전지휘권 대신 인민군을 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방어적 장치로 만든 기구가 총정치국이라는 가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총정치국은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상유지와 조선인민군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의 <그림-1>은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가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가설



연구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정과 조중연합사령부 성립, 그리고 김일성의 위기의식과 대응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과정과 내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김일성이 총정치국을 이용, 조선인민군을 통제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은 이 논의의 결론이다.

10) 중국군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혼용하여 표기한다.

## 2. 중국의 참전과 김일성의 위기의식

### 1) 중국의 참전과정과 조중연합사 설치 제기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공식' 참전한 날은 1950년 10월 25일이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이날을 참전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넌다.<sup>11)</sup> 중국군의 참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조중연합사령부의 구성은 언제부터 제기되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중국군의 참전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연명으로 모택동(毛澤東)에게 군대의 파견을 간청한 서한을 보내면 서부터이다.<sup>12)</sup> 그러나 중국이 '내부적'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서고 있다.

스탈린(Stalin)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은 1950년 5월 13일 북경(北京)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모택동에게 남한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알렸다. 모택동은 깜짝 놀라 스탈린에게 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다. 스탈린으로부터 소련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승인했다는 답을 들은 뒤 모택동은 계획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13)</sup>

1950년 5월 15일 모택동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조선이 현재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것 또한 중국과 조선의 공동과제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동의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모택동은 만약 미국인들이 참전하면 중국도 곧 부대를 파견해 조선을

11)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49쪽.

12)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279쪽.

13) 강규형·캐스린 웨더스비, 「소련문서를 통해본 6·25 전쟁의 기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평양」, 『6·25 전쟁의 재인식: 새로운 자료 새로운 해석』, 기파랑, 2010, 68쪽.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변경지역으로 일부 중국군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는 무기와 탄약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물었다. 김일성은 이런 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14)</sup>

그러나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지원하기로 한 모택동의 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이 참전한 상황에서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1950년 7월 12일, 주은래(周恩來)는 “중국은 미국이 조선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정부는 이 전쟁에서 조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말하면서, 중국에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 50만 분의 1의 비율로 제작된 지도 각 500장씩을 제공하고 전선의 상황을 통보해주고, 인민군 군복 견본을 가능한 빨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15)</sup>

1950년 7월 19일, 모택동은 북경 주제 북한 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조선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하기로 승낙했으며, 만약 조선이 지원을 원하면 중국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4개 군단 32만의 병력을 준비해 놓고 있고, 8월 10일 이전에 김일성이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sup>16)</sup>

8월에 접어들면서 전황이 낙동강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모택동은 점점 더 파병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8월 상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고위지도자들에게 지원군 형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sup>17)</sup> 8월 하순에 주은래 총리는 국방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을 원조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밝히면서 ‘제반 상황에 대한 준비를 더욱 주도면밀하게 처리하고 이러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14)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369~370쪽.

1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1950년 7월 15일자」. 선즈화, 앞의 책, 373쪽, 재인용.

16)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1950년 7월 20일자」. 선즈화, 위의 책, 373쪽, 재인용.

1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8쪽.

강조한다.<sup>18)</sup>

김일성도 중국의 지원 준비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선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소련의 의견을 파악해야만 했다. 당시 스탈린은 중국이 조선전쟁에 개입해 조선에 대한 소련의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동북아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sup>19)</sup> 따라서 김일성의 거듭된 지원 요청에 ‘만약 필요하다면, 조선의 공군에 다시 공격기와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sup>20)</sup>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고, 남쪽의 전투를 가능한 빨리 종결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조선의 상황은 즉시 심각하게 변했으며, 모택동은 조선에 파병해 참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sup>21)</sup>

9월 들어 중국은 인민군의 급속한 붕괴와 패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10월 초 UN군이 38선을 돌파하자 주은래 총리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sup>22)</sup>

이어서 북한으로부터 공식 참전 요청을 받은 모택동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 특사로 활동한 박일우를 통해 참전이후 파견군대의 법적지위, 권한, 북한군과의 연합작전 문제 등 일련의 문제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 협정안 작성에 착수하게 된다.<sup>23)</sup> 그리고 이 내용은 박일우를 통해 김일성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당시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가) 연합사령부 및 참모부의 구성은 중국측이 정(正)이 되며, 북한측은 부(副)가 되고,

18) 위의 책, 229쪽.

19) 선즈화, 위의 책, 377쪽.

20)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 1950년 8월 28일자」, 선즈화, 위의 책, 377쪽 재인용.

21) 선즈화, 앞의 책, 378~379쪽.

22)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2권』, 고려원, 1991, 176쪽.

23) 김광수, 앞의 글, 279쪽.

24) 위의 글, 279쪽.

- 나) 연합사령부의 구성원은 중국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의견의 상이 있을 때는 중국측의 의견에 따른다.
- 다) 동 기관의 용어는 중국어로 한다.
- 라) 중국군의 동의없이 화전(和戰)에 관한 한 북한측은 여하한 국가와도 협정을 맺을 수 없다.
- 마) 북한에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조건, 그리고 우선적이며 무료로 북한측이 보장한다.
- 바) 북한에서 중국군은 북한의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다.
- 사) 북한의 철도, 도로, 및 항만시설은 중국군의 관할 하에 둔다.
- 아) 필요한 경우 중국군은 북한 주민을 검색 및 체포 취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 조중연합사령부 성립과정

조중연합사령부가 성립되는 데는 북한이 중국에게 공식참전을 요청한 1950년 10월 1일부터 연합사가 성립되는 1950년 12월 7일까지 2달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중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합사 구성에 대해 제의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Stalin)이 중국측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일성도 결국 연합사 성립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중연합사령부의 성립과정에 이르는 주요 사항을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조중연합사령부 성립과정

한국전쟁 발발	북한, 중국에 공식참전요청	중국군 참전	총정치국 설치	조중연합사 성립
1950.6.25	10.1	10.19 (10.25 공식)	10.21	12.7

\* 출처 : 김광수(2008);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6』(1980)을 참고로 작성.

여기서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세부 성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은 1950년 10월 20일 후퇴 중 덕천 대유동에서 중국군 사령관인 팡덕회(彭德懷)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첫 면담에서 팡덕회는 중국군과 인민군과의 작전배합문제를 제기하지만 통일적인 지휘기구의 구성문제까지 제기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것은 김일성이 통일적인 지휘체계보다 양측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수평적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sup>25)</sup>

북한측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면담시 김일성의 발언도 양국 군대간의 긴밀한 '협동작전'<sup>26)</sup>과 정보공유, 그리고 중국군측에 조선인민군의 연락원과 통역원 파견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27)</sup> 중국군의 참전 후 조중연합사령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당시 전선 상황에 의해 1차 전역이 끝날 때 까지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1950년 11월초, 1차 전역이 끝난 시점에서 북한에 들어온 중공군 병력은 6개 군 30개 사단 38만 명에 달했다.<sup>28)</sup> 모택동은 제1차 작전이 종결되자 바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김일성과 접촉하여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연합지휘부 구성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sup>29)</sup>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군과 북한군 사이의 지휘통수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제1차 작전기간 중에 팡덕회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협조가 부족하고, 언어가 서로 다르며, 지형에

25)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49쪽.

26) 김일성의 당시 발언은 계속해서 '연합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협동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협동작전이란 '몇개 군종이나 병종들 또는 구분대들이 협동하여 진행되는 군사작전'.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또한 총정치국이 작성한 자료에도 계속해서 '협동작전'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우리의 영예스러운 인민군대는 후퇴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이 못되어 자기의 병력을 재편성하여 형제적 중국인민지원군부대와 긴밀한 협동작전전에 청천강 이북에 침입하였던 적들을 포착섬멸하고 계속하여 간섭자들에게 심중한 타격을 가하였다”조선인민군 총정치국, 『8·15해방 6주년에 제하여보고자 및 선동원들에게 주는 자료』 (1951.8) Item #9~21, 9쪽.

27)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과 한 담화(1950.10.21)」, 『김일성 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3쪽.

2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64쪽.

29) 김광수, 앞의 글, 282쪽.

대해 익숙하지 못하고, 북한의 군대와 인민들이 퇴각하면서 도로를 봉쇄하는 등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고했다.<sup>30)</sup> 특히 북한군이 중국군을 적군으로 잘못 인식하고 오인 사격하는 사건이 속출했다. 예를 들면 11월 4일 중국 인민지원군 제39군단이 박천 동남지역에서 미군 제24사단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여천을 향해 이동하고 있던 북한군 탱크의 오발로, 결국 포위되어 있던 적군에게 포위망을 뚫어주어 적이 퇴각할 수 있게 하였다.<sup>31)</sup>

조중연합사의 구성문제에 대해 중국측이 다급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김일성은 계속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팽덕회는 11월 5일 회담에서 주북 소련대사 슈티코프(Terentii Fomitch Shtykov), 김일성, 팽덕회의 3인 지휘체제를 제안해 보았으나 슈티코프와 김일성은 답변을 회피하였다.<sup>32)</sup>

11월 7일, 팽덕회는 박일우를 통해 김일성과 만난 자리에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중 첫째 문제는 적군의 후방에서 새로운 전쟁을 개시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슈티코프가 중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방호산과 최인이 이끄는 두 개 군단을 적군의 배후로 침투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김일성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었다. 둘째 문제는 중국군과 북한군의 연합작전 문제였는데 김일성은 일관되게 참모진을 보내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 강조할 뿐, 중국군과 북한군의 각 총지휘본부를 가깝게 설립하는 것은 반대하고, 이것이 연합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더욱 반대했다.<sup>33)</sup>

팽덕회는 연합사 구성에 대한 이 사정을 11월 11일 모택동에게 전문으로 보고하였다. 모택동은 즉시 팽덕회가 그에게 보낸 전문을 스탈린에게 전송했다. 스탈린은 11월 16일 모택동과 북한측에 전문을 보내 중국지원군 위

30)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 1950년 10월 25일, 11월 2일자」,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590쪽 재인용.

31)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590쪽.

32) 김광수, 앞의 글, 283~284쪽.

33) 양진삼, 앞의 글, 590쪽.

주의 단일한 지휘체제를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려 주었다. 11월 17일 스탈린의 의사가 김일성에게 전달되자 김일성도 마지 못해 수용하게 된다.<sup>34)</sup>

연합사령부 구성에 관한 북중간의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팽덕회는 이날 이후로 비록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통해야 했으나 인민군부대들을 자신의 작전구상에 맞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만, 김일성의 사전 동의를 얻는 형식을 취하였다.<sup>35)</sup>

모택동은 1950년 11월 23일, 심양(瀋陽)에 있던 '고강(高崗)'을 대유동 지원군 사령부로 보내 김일성, 팽덕회와 조중연합군 지휘계통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에게 조중연합사를 만들어 작전지휘권을 통합한다는 것은 중국군 지휘부에 조선인민군의 작전지휘권을 내준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일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문제였다.<sup>36)</sup>

이에 모택동과 유소기(劉少奇), 주은래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김일성을 북경으로 불러들인다. 김일성은 북경 방문 후 12월 7일 북한으로 돌아와 팽덕회와 조중연합사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결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7)</sup>

- 연합사는 모든 작전범위와 전선에서의 활동을 관할하며, 후방동원, 훈련, 군정경비 등은 북한 정부가 직접 담당 관할하기로 했다.
- 아울러 연합사의 결성사실을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
- 연합사의 명령은 인민군에게는 연합사 명의로, 지원군부대에게는 지원군 사령부 명의로 전달.
- 인민군은 지원군 사령부에 상교(중령급)를 조장으로 하는 3~4명의 연락조 파견,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34) 김광수, 위의 글, 283~284쪽.

35) 위의 글, 284쪽.

3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69쪽.

37) 위의 글, 169~170쪽.

김일성과 팽덕회의 협정안은 12월 8일 6개 항목으로 된 공식문서로 작성되었다. 이로써 팽덕회는 전선에 있는 5개 군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군의 인사와 행정에 관한 권한은 김일성에게 있었고, 작전에 필요한 지방행정, 민간동원, 군의 보충훈련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조선측에 건의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규정상으로 팽덕회는 군사작전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사전 협의를 취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들은 가능한 북한내에서 김일성의 위상을 배려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조중연합사령부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이후부터 인민군의 작전은 명실상부하게 팽덕회의 작전구상에 따라 시행되었다.<sup>38)</sup> 김일성은 앞으로는 직접 작전지휘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후 공산군의 전략은 모택동식 군사전법으로 일원화되었다.<sup>39)</sup>

### 3) 김일성의 위기 의식과 대응

김일성에게 중국군의 참전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중국군의 참전이 김일성과 박헌영의 요청에 의한 것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요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였으나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김일성에게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압록강까지 후퇴한 북한에게 중국군의 참전은 꺼져가는 촛불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외국군의 군사적 개입 없이-적어도 작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군 스스로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원했을 김일성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일성은 외국군의 개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세가지 측면에서 김일성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첫째, 연합사령부가 구성되고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중국이 가져

38) 김광수, 앞의 글, 305쪽.

39)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56쪽.

간다는 것은 국가 주권을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무엇보다 이 점을 가장 중대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대가 괴멸된 상태에서 수십 만 명의 중국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지휘체계의 수립은 곧 북한군의 지휘권을 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군이 전투 한번 치러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sup>40)</sup>

둘째, 국내 정치세력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후원으로 권력을 잡게 된 김일성에게 중국군의 참전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 그의 경쟁자이자 친중국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연안파의 부상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상대적으로 김일성 계열인 만주파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사회 및 군대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전쟁수행 능력을 무능하다고 보고하는 소련 대사의 보고를 애써 무시하려 할 만큼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던 소련<sup>41)</sup>에 비해 중국은 참전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하려 했을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북한 국내정치에서 친중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연안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는 김광수의 지적대로 중국군의 참전 이후 북방 삼각동맹내에서 전쟁 수행의 주도권은 중국측으로 넘어 갔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sup>42)</sup>

이같은 구조적 상황 속에서 행위자로서 김일성의 선택은 무엇이였을까? 김일성은 중국의 참전이 북한군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적어도 미군이 38선을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중국군의 참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군의 참전은 북한이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던 간에 연합작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sup>43)</sup>

40)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51쪽.

41) 김광수, 앞의 글, 272쪽.

42) 위의 글, 285쪽, 289쪽, 311~312쪽.

43) 왜냐하면 김일성은 중국에서의 항일운동시기 중국공산당과 연합작전을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특사였던 박일우를 통해 중국이 연합사 구성 작업을 하고

김일성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과 군대 지휘권에 대해 생각했던 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당시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의 정무참사관 차이청원(柴成文)의 보고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차이청원에 의하면, 김일성의 초기 전술은 비교적 간단해서, 적군의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군대를 출동해 조선대신 전투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군대의 지휘권은 자연스럽게 김일성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수십만의 부대를 몇 차례 나누어 조선에 파견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야 김일성은 상황이 심각하며 자신이 중국군을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제기하기가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김일성은 쌍방 지휘부를 함께 설치하고자 제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44)</sup>

조중연합사를 만들어서 중국지휘관이 통일지휘를 한다는 것은 곧 김일성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민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중국군에 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었다.<sup>45)</sup> 그러나 전개되는 상황은 김일성에게 결코 이롭지 않았다. '차이청원'의 기록을 참고하더라도 이 시점에 중국군의 참전에 대해 김일성이 가졌을 위기의식은 컸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주권을 지키고 국내 정치에서 상대세력, 특히 연안파를 견제하여 당내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UN군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1군단장 김웅, 2군단장 무정 등 인민군 전선지휘관들의 김일성 지휘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 기구를 만들어 규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sup>46)</sup>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의 직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김일성의 구상은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중국에 넘겨주더라도 조선인민군내 강력한 당 조직을

---

있음을 전달받았을 것이다.

44) 「1950년 10월 10일 차이청원 방담기록」, 선즈화, 앞의 책, 383쪽 제인용.

45)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55쪽.

46) 인민군 전선 지휘관들의 김일성에 대한 비판과 증오의 내용은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2권』, 고려원, 1991, 26~27쪽.

설치함으로써 당적 지도를 통해 정치적, 사상적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sup>47)</sup> 그리고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김일성은 중국과 연합군 구성에 미온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시간을 끌게 된다.<sup>48)</sup> 그리고 전쟁의 다급한 후퇴시기에 인민군대내 총정치국이라는 조선로동당 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 3.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북한은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결정을 통해 인민군대내에 당 단체, 즉 '총정치국'을 설치한다. 북한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이라며 발표한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sup>49)</sup>를 살펴보면 총정치국 설치 배경과 구성, 그리고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총정치국의 설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

47) 유사한 경우로써, 중국과 북한은 조중연합사 성립뿐만 아니라 북한내 철로 관할권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였다. 철로 관할권에 대한 협상은 1951년 중반까지 진행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은 철로운송권은 국가 주권과 관계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에 있는 중국 노무원들은 북한 철로국의 지도를 받으며, 정치공작은 중국 군사대표의 직접적인 영도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양진삼, 앞의 글, 609쪽.

48) 여기에는 김일성이 중국내 항일투쟁시 경험했던 '민생단 사건'의 기억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민생단 사건으로 중국공산당과 항일유격부대에서 활동하던 500여명의 조선인 당원이 살해되었고, 김일성 자신도 생사의 위기에 놓였었다고 한다. 민생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166~177쪽을 참조. 조선로동당략사에는 민생단 사건에 대해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건실한 혁명투사들에게 합부로 <<민생단>> 감투를 씌워 비렬한 방법으로 중상모해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로동당략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00쪽.

49)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354~360쪽.

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행정에서, 특히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에 당단체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sup>50)</sup>

북한은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후퇴시기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발표문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내에는 우리 당 조직외에 그 어떤 다른 당 조직도 있을 수 없다.<sup>51)</sup>

북한에서는 1949년 6월 남북 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이 만들어 졌다. 따라서 한국전쟁시 조선로동당 외에는 다른 정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있다면 조선로동당의 우당인 민주당 또는 청우당 정도였을 것이다.<sup>52)</sup> 그렇다면 김일성의 발언 중 '다른 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조선로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과 실제로 조선로동당 외에 다른 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발언은 시기적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 시기와 연계해 살펴볼 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김일성이 군대내 당 사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중국내전에 참전했던 2,000여 명의 조선인 군인을 넘겨 받아 조선군대 편제표에 따라 편성하면서 '중국 동지들과 토론하여 간부 임명을 하되 정치책임자 자리만 비워두

50) 위의 글, 354쪽.

51) 위의 글, 356쪽.

52) 1950.9.25일 조선인민군 제249부대 5대대 문화부대대장 홍성현이 작성한 신/구대원 성분 구성표에는 정당별 기록란이 로동당, 민주당, 청우당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구성표에는 당적이 있었던 대원 중 대다수가 로동당원이었으며, 민주당이나 청우당은 간혹 1명씩 기록되는 정도였다. 「조선인민군 제249군부대 5대대 문화부 대원성분구성표」, 『미국 공문서 보관소 소장 북한관련 자료목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소유권 증명서 외 30(마이크로필름)』, 아세아연구소 복사, 1972.

라고 지시했다. 그 뒤 문화훈련국 부국장이던 김강을 직접 불러 그 부대의 정치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한다.<sup>53)</sup>

또한,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민족보위성이 출범할 때 최측근의 한명인 김일 중장을 민족보위성 부상 겸 문화훈련국장에 임명했다. 이것은 김일성이 군대 정치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sup>54)</sup>

그러나 총정치국의 설치를 발표하는 발표문에 '다른 당조직'을 언급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전까지 김일성이 생각하는 '다른 당'의 존재가 당시 북한군 내부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잔재에 대해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총정치국의 설치 내용을 보면,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고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며 구분대와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 구분대장 직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중대에는 당세포를 내오고 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 연대에는 연대당위원회를 설치하며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는 해당 정치기관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문제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sup>55)</sup> 또 기존 민족보위성 직속하에 있던 제2중앙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 신문사, 출판사, 협주단 등이 총정치국 직속으로 편입되었다.<sup>56)</sup> 이상의 총정치국 설치 내용을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53) 여정, 『붉게 물든 대동당-전 인민군 사단 정치위원의 수기』, 동아일보사, 1991, 14쪽.

54)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49쪽.

55)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357쪽.

56) 고재홍, 앞의 글, 155쪽.

〈표-1〉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총정치국으로 개편사항

구 분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총정치국
책임자 (1950년)	김 일	박헌영
명칭변경	군단 이하 각급부대 문화부	정치부
	문화부 지휘관	정치부 부대장, 구분대장 직제 신설
직제신설	-	중대 당세포, 대대/연대 당위원회 설치
	-	사단, 군단, 총정치국 - 비상설위원회 '당포미씨야' 설치(당조직문제 심의 결정)
하부조직	조직부, 선전부, 민청지도부, 군사출판소 등	조직지도부, 정치교양부, 간부부, 민청사업부, 총무부, 적공부, 검열부 등
	-	기존 민족보위성 직속하에 있던 제2중앙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 신문사, 출판사, 협주단 등이 총정치국 직속으로 편입

\* 출처 :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357쪽; 고재홍, 앞의 글, 154쪽; 이대근, 앞의 책, 51쪽, 54쪽 참조 작성.

북한은 총정치국 설치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에서는 인민군대내에 당단체와 정치기관을 내오는데 필요한 세칙을 빨리 작성하며 간부제발사업(幹部提拔事業)<sup>57)</sup>을 잘하여야 하고, 인민군대내에 당원등록사업과 당력량 배치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58)</sup>

또, 당중앙위원회는 1950년 11월 29일 '조선인민군 내 당 단체 사업규정'을 비준, 인민군대 내 당 단체와 정치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57) 간부 선발업무를 의미함.

58)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357쪽.

다.<sup>59)</sup>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총정치국은 군대내 당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군내 군사지휘계통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총정치국만의 정치지휘계통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군사지휘체계는 최고사령관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 전선사령관 김책(후방사령관 최용건) → 전선사령부 참모장 강건 → 전선사령부 군단장 → 사단/여단장 →련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소대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군사지휘체계는 조중연합사 성립 이후 김일성의 지휘권이 팽덕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총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 총정치국장 박헌영 → 당 중앙위원 겸 각 사령부 파견 군사위원 → 군단/사단/여단 군사위원·정치부장 → 정치부중대장으로 이어지는 정치지휘계통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sup>60)</sup>

그럼으로써 총정치국은 과거 문화훈련국보다 공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군사명령체계에서 훨씬 벗어나게 되었으며, 다른 참모부들과 구별되는 '정치부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61)</sup>

김일성이 민족보위성과 총정치국을 비교하여 언급한 발언내용은 총정치국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총정치국을 당원의 조직생활을 관장하는 핵심 부서인 당 조직부에 비교함으로써 군내 위상을 중요시 하였다.

가령 당중앙위원회에 비교해 말한다면 민족보위상은 당중앙위원회의 군사 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총정치국은 군대내 당조직들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sup>62)</sup>

59) 이대근, 앞의 책, 54쪽.

60) 고재홍, 앞의 글, 165쪽.

61) 위의 글, 165쪽.

62)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9.8)」, 『김일성 전집 26』,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49쪽.

이와 같이 군대내에 총정치국이라는 강력한 당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당적지도를 실현하여 당과 군대내에 당의 규율을 강화한다면 작전지휘권은 중국사령관에게, 정치적 통제권은 조선로동당 책임비서, 즉 김일성에게 있다는 일종의 '담보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초대 총정치국장으로는 박헌영이 임명된다. 이것은 김일성의 구상이었을 것이다. 당시 당 정치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만주파), 박헌영, 이승엽, 김삼룡, 허헌(이상 남로당파), 박일우, 김두봉(이상 연안파), 허가이(소련파), 김 책(김일성 계열)이었다.<sup>63)</sup> 김일성은 군내 당조직의 책임자로서 연안파나 소련파가 아닌 남로당계인 박헌영을 선임함으로써 인민군대가 중국이나 소련에 가까워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sup>64)</sup>

#### 4.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인민군 통제

총정치국 설치 이후 곧바로 군대내 당 조직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공군 지휘부내에서 종파집단이 적발되었는데 정찰부장 및 건설부장들이 노동당원 14명 가량을 규합하여 선출된 당위원회를 비난·무시하고 자신들이 당조직의 지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한다. 또 총정치국의 사업방식을 부정하는 요소도 조중연합사령부 소속의 북한군 군단들에서 나타났다고 한다.<sup>65)</sup>

63)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258쪽.

64) 서동만은 박헌영이 초대 총정치국장으로서 임명된 것에 대해 김일성이 그를 통해 연안계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당시 전선 이남의 빨치산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1995, 238~242쪽. 고재홍, 앞의 글, 153쪽 재인용.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1~82쪽.

이같은 현실에 대해 김일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휘의 작전권을 중국에 이양한 김일성은 1951년부터 그동안 투자를 못한 당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sup>66)</sup> 그리고 이 시기 군에 대한 김일성의 주요 언급은 군내 당조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군의 정치 및 작전에서 북한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sup>67)</sup>를 따라 하는데 대한 비판과 '우리(북한)식' 사업의 전개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나 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등에서 특별히 '우리식'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0년 11월 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였다고 반공격 준비를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며 싸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며 반공격의 핵심 역량은 인민군 부대들'이라고 강조한다.<sup>68)</sup>

1951년 1월 28일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김일성은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9)</sup> 김일성은 '오늘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데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면서 '혁명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일부 지휘관들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전법을 적용하는 엄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5군단장인 연안계 출신의 '방호산'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일부 군사지휘관들은 아직도 교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5군단장은 우리의 야전규정을 보지 않다보니 중국인민지원군에서 쓰는 전법을 마치 새로운 전법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중략) 군사지휘관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무식해지고 이미

6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245쪽.

67) '다른 나라'는 중국을 지칭하는 듯 하나 소련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8) 김일성, 「반공격준비를 잘하며 인민군대내 규율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11.2)」, 『김일성 전집 1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379쪽.

69)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1951.1.28)」, 『김일성 전집 1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94~97쪽.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전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놓은 새로운 전법으로 보면서 남을 숭배하게 됩니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군사지휘관들은 우리 당의 군사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지휘관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함으로써 전쟁승리를 앞당겨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sup>70)</sup>

1951년 2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군단군사위원회제를 내오며 인민군대내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연설한다.<sup>71)</sup>

김일성은 연설에서 “군단군사위원회제를 내오는 것은 인민군대내 정치기관들과 당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군단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군단군사위원회는 군단에 파견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표자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직속되며, 군단장의 제1보조자이며, 군단 전체성원들의 직계상관**”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군단관하 부대들에 하달되는 명령서에는 군단장과 군단군사위원이 공동서명하라고 강조하였다.<sup>72)</sup>

이어서 김일성은 최근 전선상황과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에 대하여 말한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내에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이 아직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당원들은 당조직의 통제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조직의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73)</sup>

군단에 파견되는 군사위원이 최고사령관에 직속됨을 강조한 것과 당단체와 정치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강화해 당원들을 당조직의 통제 속에 두어야

70)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94~97쪽.

71)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단군사위원회제를 내오며 인민군대내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1.2.20)」, 『김일성 전집 1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72) 위의 글, 152쪽. 굵은체는 저자 강조.

73) 위의 글, 153~155쪽.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1951년 3월 6일 열린 조선인민군 군단, 사단 정치부장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모든 부대들에 조선로동당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로 인해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매우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일꾼들이 어떤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다섯째로 든 내용은 인민군대의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는 것이다.<sup>74)</sup>

김일성은 “오늘 인민군대의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조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조선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진행하며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금 일부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우리 군인들이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진행할 대신에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본 따려 하는데 그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사업 방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군사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의 전쟁경험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살려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써야 합니다. (중략) 다른 나라의 전투규정과 전법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전투계획도 반드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sup>75)</sup>

74)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조선인민군 군단, 사단 정치부장회의에서 한 연설(1951.3.6)」, 『김일성 전집 1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186~195쪽.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6가지 사업방향은 첫째, 군인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주목하라. 둘째,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라. 셋째, 일부 정치일꾼들이 군사지휘관들과 사업상 협의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치일꾼들은 지휘관들이 옳은 결심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군인들이 지휘관의 전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인민군부대들은 지방 당 및 정권기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그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인민군대의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여섯째,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라였다.

75) 위의 글, 193~194쪽.

이런 내용의 절정은 김일성이 1951년 8월 1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훈령으로 발표한 “박격포를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라 할 수 있다. 박격포가 산악지대가 많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인데, 인민군 보병지휘관들은 아직도 박격포를 옳게 이용할 줄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sup>76)</sup>

김일성은 이전에도 “우리는 포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평사포보다 박격포와 곡사포를 많이 리용하여야 합니다. 기복이 심하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조건에서는 박격포와 같이 가볍고 기동에 편리하며 위력이 있는 포를 잘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77)</sup>

김일성은 훈령에서 이 같은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박격포 이용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널리 알리고, 박격포가 보병의 위력한 무기중의 하나라는 것을 널리 해설하며, 박격포를 널리 리용하는데 제기되는 제반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훈령에 근거해 취한 대책을 1951년 8월 15일까지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4가지 실천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sup>78)</sup>

한편 김일성은 총정치국에 전투영웅들을 광범히 소개 선전하라는 지시도 한다. 김일성은 1951년 2월 20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준 지시를 통해 “지금 우리 출판물에 쏘련의 전투실화와 영웅들을 소개하는 글은 많이 실고 있지만, 인민군 장병들의 영웅적 투쟁을 소개하는 글은 얼마 신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쏘련의 마르코소브(쏘련의 전쟁영웅: 저자 주)만 소개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하고 “출판물에 우리나라 전투영웅들을 소개 선전하는 글을 많이 실어야 하겠다”고 지시한다.<sup>79)</sup>

또한 김일성은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강력한 규율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며, 당의

76) 김일성, 「박격포를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00468호(1951. 8.11)」,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415쪽.

77)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96쪽.

78) 김일성, 「박격포를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417쪽.

79) 김일성, 「전투영웅들을 광범히 소개 선전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준 지시(1951.2.20)」, 『김일성 전집 1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159쪽.

강력한 통제를 강조하였다.<sup>80)</sup>

김일성이 언급한 '우리식' 사업 강조는 다른 나라(중국과 소련)를 무조건 따라 배우는 기풍을 바로잡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중국군과 소련의 군사고문단을 통해 북한 국내 정치에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일종의 견제이자 경고였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의 군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김일성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951년 총정치국 출판물들은 이같은 상황변화를 조금씩 암시하고 있다. 1951년 6월에 출판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sup>81)</sup>에는 총 15곡의 노래가 실려 있다. 그중 1번은 “쓰팔린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다”이고, 2번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다. 개인을 칭송하는 노래가 게재된 것은 스탈린과 김일성이 유일하다. 이곡은 2절로 되어 있다.

####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면류관 우에 역역히 빚어주는 거룩한 자올아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80)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 12.21)」, 『김일성 전집 1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470쪽.

81)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조선인민군총정치국, 1951.

또 총정치국에서 제작한 “시집-군무자들의 입선 작품집”<sup>82)</sup>에는 23개의 시가 실려 있는데 첫 번째 시는 “김장군 만나러 가는 밤”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시 내용 중에는 “아... 이 밤이 빨리 새라. 아침 해가 돋우면 태양과 함께 장군을 만나리라. (중략) 나도 보람있는 청춘을 모주리 조국과 장군 앞에 바치리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김일성은 ‘빨찌산’, ‘애국자’, ‘장군’, 그리고 심지어 ‘태양’으로 칭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총정치국 지휘계통의 최고책임자이었던 김일성은 총정치국 발간 책자에 자신의 존재감을 실으면서 북한 및 조선인민군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군내 당조직사업도 1951년 7월 21일 “조선인민군 내에서의 로동당단체 설치의 총화와 정치기관들의 사업정형”에 관한 정치위원회 결정을 통해 볼 때 1951년 7월경 북한군 각급부대의 당위원회 구성과 정치기관의 개편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sup>83)</sup>

한편, 김일성은 민간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에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이용하였다. 김일성은 1951년 1월 9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전선군단들에 민간사업부를 조직할데 대하여”를 지시한다. 이 지시는 인민군대의 재진격을 통해 자신들이 다시 차지하게 된 지역에 인민정권기관 복구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군중의 사상동향을 연구하는 사업’을 맡게 할 민간사업부를 조직하라는 것이었다. 민간사업부는 전선군단 정치부에 조직하고,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군, 면 인민정권기관 일꾼들은 전선군단 민간사업부에서 선발하고 군단군사위원들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인민군 총정치국에서는 전방군단 민간사업부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민간사업부의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sup>84)</sup>

82)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시집-군무자들의 입선 작품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

83) 고재홍, 앞의 글, 155쪽.

84) 김일성, 「전선군단들에 민간사업부를 조직할데 대하여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준 지시(1951.1.9)」, 『김일성 전집 1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30~32쪽.

전선군단 민간사업부의 구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중국군에 넘어간 상황에서 군이 차지한 지역에 정권기관 복구와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군대내 당기구에 맡겼고, 그 조직의 최고기관이 총정치국이란 점에서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총정치국에게 당중앙위원회에 사업내용을 보고하게 한 점을 고려 시 당시 총정치국의 당적지도 체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11월에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관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고급 군사학교(현재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및 각급 군사학교와 군관강습소들이 신설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1952년 한 해 동안만도 전체 군관의 45%가 재교육을 받았고, 많은 군사지휘관들이 새로 양성되었다.<sup>85)</sup>

이 시기 국내정치에서 김일성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김일성 선집』 출판을 들 수 있다. 1953년 5월 5일 『김일성 선집』 3집<sup>86)</sup> 초판이 간행되는데 이는 당시 김일성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점차 확고해지는 증거가 될 것이다.

1952년 2월 7일 인민군 창건 4주년 기념연설에서 김재욱 총정치국장은 “조선인민의 지도자이자 조직자인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승리를 보장했다.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인민군 총정치국은 관할 각급 정치기관과 당단체에 력량을 집중 동원해 **군내 당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군대에 당의 위상은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사병들은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에 전적으로 의탁했다**”<sup>87)</sup>고 평가했다.

85) 조선로동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234쪽.

86) 김일성, 『김일성 선집 3』,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3. 김일성 선집은 3권(1953.5.5), 4권(1953.7.27), 2권(1953.11.25), 1권(1954.12.1)순으로 초판이 출간된다. 김일성 선집 3권의 첫 장에는 '김일성 선집 출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3권에는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서술한 김일성 동지의 중요한 저술들을 수록하였다'라고 기술하며 '전시의 긴급한 요구에 의하여 제3권부터 먼저 출판하게 된다'라고 적고 있다. 참고로 선집의 내용은 연대순으로 작성되었고, 1권, 2권은 1945년 8·15 해방 후부터 김일성의 중요 저술을 수록하고 있다.

87) 『로동신문』 1952년 2월 7일자. 굵은체는 저자 강조.

군대내 당적 조직사업이 성공해 가는 시기에 연안파에 대한 김일성의 견제는 연합사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 간부들을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김일성은 1952년 7월 6일 연합사 지휘부에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결정으로 연합사 부사령 겸 인민군 전선사령관인 김 응을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임명하여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돕게 하고, 인민군 전선사령관에 김광협을 임명하며 조중연합사 부사령관은 최용건이 계승한다고 통고하였다.<sup>88)</sup>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총정치국을 통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군대내에서 당의 영향력과 김일성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국내정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조중연합사에 배치되었던 연안파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김일성의 통제력도 강화되었다. 비록 최고사령관으로서 작전지휘권은 상실했지만 인민군대내에 총정치국을 설치하여 국내정치와 북중관계의 제반 상황을 극복하고 통제하려 했던 김일성의 구상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한국전쟁시기 조선인민군의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해 북중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개시 전부터 미군이 참전하고,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 중국군이 참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김일성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에 따른 연안파의 부상, 조중연합사령부 설립에 따른 북한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 등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인민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88)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 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61쪽.

된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장으로써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정치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중국에 대해 주권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한국전쟁 시기 조선인민군 내에 총정치국이라는 당 단체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조중연합사령부 구성으로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상실했지만 총정치국 설치를 통해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정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의 부상을 저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sup>89)</sup>

이 글을 통해 1950년 10월 21일 설치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설치 배경에는 북한이 발표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외에 중국군의 참전상황에서 김일성의 국내정치 및 주권수호라는 구상에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설치 배경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있다. 총정치국 설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발표'<sup>90)</sup> 외에 이에 대해 설명하는 북한 당국의 공식문건은 현재까지 추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총정치국 설치가 중국의 참전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라는 이 글의 주장 또한 제한된 자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추가 연구가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

북한과 중국은 항일운동의 혁명전통을 공유한 혈맹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갈등이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은 군사적 지원관계였지만,

89) 이 점에서 '김일성에게는 한국전쟁 시기가 시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 시기에 그동안 당내에 구축되어왔던 '1949년 6월 질서'를 해체시키고 자신의 단일 권력체제 확립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이종석'의 평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238쪽.

90) 김일성, 「인민군대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10.21)」,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그 속에는 깊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조중연합사령부의 성립,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설치, 북중간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 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과거 역사는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군사대국화를 통해 미국과 함께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한반도의 미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차 한민족의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과거 북중관계의 갈등사태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북중관계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 시기 북중관계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1. 12. 28,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한국전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중국인민지원군, 조중연합사령부, 당적통제, 작전지휘권, 김일성, 조선로동당, 북중갈등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GPB Establishment within NKPA  
- With a Focus on NK-PRC Conflict during Korean War -

Lee, Sin-ja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is a party organization installed within the every level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from Corps to company. North Korea established General Politics Bureau(GPB), a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military on 21st Oct, 1950. North Korean regime announced that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military was that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military principles during the Korean War, when North Korean military was on retreat after entry of the UN forces. However, considering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at this time was not able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nd military, what was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GPB? Were there any other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GPB, with a special focus on North Korea-PRC conflict during this time period which had been previously neglected in other stud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China Combined Command and the entry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CPVA), Kim Il Sung lost operational control over NKPA as the Supreme Commander. In addition, entry of CPVA weakened Kim's political influence in North Korean Politic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ifferent view on the establishment of GPB: it was established by Kim Il Sung as an effort to check on operational control which was handed over to the CPVA command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GPB, the military principles of the NKPA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Kim continued to emphasize that North Korea

must lead the war and that the war must be fought using North Korean tactics. Since then, he began to be described as “the Sun” by the pamphlets published by GPB, and his political status was elevated over higher. With his elevated political status, he was able to take action on his political enemies, who were the main supporters of North Korea - China Combined Command. He was now able to control his relations with the supporters of the combined command.

In sum, Kim was able to check on Chinese influence over the North Korean military by establishing GPB, a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military. In addition, GPB helped Kim gain political upper hand within North Korean regime.

Key Words : Korean War,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General Political Bureau(GPB), Chinese Peoples's Volunteer Army(CPVA), North Korea-China Combined Command, Party's Control,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Kim Il Sung, Korean Worker's Party, North Korea-PRC Conflicts.